문화재청 공고 제2020-21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8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 7. 1.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1건

지정사항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보물 제419-3호 (2002.10.19.)	삼국유사 권4~5 (三國遺事 卷四~五)	2권 1책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범어사성보박물관)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7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지정조격 권1~12, 23~34 (至正條格 卷一~十二, 二十三~三十四)	2책	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 (壯勇營 本營圖形 一括)	1건 3점 (도형 기미본, 1점, 정간 신유본 1점, 정간 기미본 1점)	**＊ 도형 기미본 및 정간 신유본** ○ 국유(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정간 기미본** ○ 고려대학교(고려대박물관)
3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 (慶州 南山 長倉谷 石造彌勒如來三尊像)	3구	국 유 (국립경주박물관)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4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陜川 海印寺 願堂庵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 및 腹藏遺物)	불상 3구, 복장유물 8건 23점	**＊ 아미타여래삼존상**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원당암 **＊ 복장유물**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원당암 (해인사성보박물관)
5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 (陜川 海印寺 願堂庵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 腹藏典籍)	29첩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원당암 (해인사성보박물관)
6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사보살입상 및 복장유물 (公州 甲寺 塑造釋迦如來三佛 坐像・四菩薩立像 및 腹藏遺物)	불상 3구, 보살상 4구, 복장유물 7건 263점	**＊ 소조석가여래삼불상·사보살입상** ○ 대한불교조계종 갑사 **＊ 복장유물** ○ 대한불교조계종 갑사 (불교중앙박물관)
7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사보살입상 복장전적 (公州 甲寺 塑造釋迦如來三佛 坐像・四菩薩立像 腹藏典籍)	8건 8점	대한불교조계종 갑사 (불교중앙박물관)

다.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

【국보 지정 예고】

□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三國遺事 卷四~卷五)

○ 지정현황 : 보물 제419-3호(2002.10.19. 지정)
○ 명　　칭 : 삼국유사 권4~5(三國遺事 卷四~卷五)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성보박물관
○ 수　　량 : 2권 1책
○ 규　　격 : 33.5×21.2 cm
○ 재　　질 : 고정지(藁精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394년(조선 태조 3) 경 판각, 조선 초기 인출
○ 사　　유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는 부산 범어사 소장본으로 총 1책이며, 전체 5권 중 권4~5만 남아 있는 서책이다. 범어사 초대 주지를 역임한 오성월(吳惺月, 1865~1943)의 옛 소장본으로 1907년경 범어사에 기증된 것으로 전해진다. 표지는 후대에 개장(改粧)되었으나 보존상태가 매우 좋다.

『삼국유사』는 고려 일연(一然) 스님이 1281년(충렬왕 7년) 편찬한 책으로, 고조선부터 삼국시대의 역사·문화에 관한 설화 등을 종합했다는 점에서 한국 고대사 연구의 보고(寶庫)로 알려져 있다. 처음 간행한 시기나 간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아 일연스님이 입적(入寂)하기 전 간행했다는 설, 1323년(고려 충숙왕 10년)경의 무극(無極) 간행설, 그리고 1394년(태조 3년) 경 경주부사 김거두(金居斗)가 『삼국사기』를 중간(重刊)하면서 함께 간행하였다는 설 등이 있다. 고려시대 판본은 알려지지 않았고 현존하는 가장 이른 판본은 1394년 경 판각된 조선 초기 판본이다.

지금까지 기 지정된 2건(국보 제306호, 국보 제306-2호)과 비교했을 때 범어사 소장본은 비록 완질(完帙)은 아니지만 1394년 경 처음 판각된 후 인출(印出) 시기가 가장 빠른 자료로서 서지학적 의미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 지정본에서 누락된 제28~30장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이자, 1512년(중종 7) 간행본의 오탈자를 확인할 수 있어 현재까지 알려진 삼국유사 판본에 대한 교감(校勘)과 원판(原板) 복원을 위한 자료로서 역사적·학술적 중요성이 크다.

아울러 범어사 소장 '삼국유사 권4~5'는 서체, 규격, 행간(行間) 등에 있어 후대에 간행된 1512년 판본과 밀접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조선시대부터 판본학적으로도 중요하게 인식되었음을 말해 준다. 또한 묵서된 음독 구결(音讀口訣)과 한글 현토(懸吐)가 있어 구결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라는 점, 단군신화(檀君神話)를 비롯하여 향찰(鄕札, 신라식 음운 표기방식)로 쓴 향가(鄕歌) 14수가 수록되어 있어 우리나라 고대 언어 연구에도 많은 참고가 된다.

범어사 소장 '삼국유사 권4~5'는 현존하는 동종 문화재 가운데 가장 빠른 인출본이자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기타 지정본의 훼손되거나 결락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 우리 고대의 종교·역사·지리·문학·언어·민속·사상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사료의 집합체라는 인류문화사적 의의를 감안한다면 국보로 지정해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존·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물 지정 예고】

□ 지정조격 권1~12, 23~34(至正條格 卷一~十二, 二十三~三十四)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지정조격 권1~12, 23~34(지정條格 卷一~十二, 二十三~三十四)
○ 소유자(관리자) : 손**(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수　　량 : 2책
○ 규　　격 : 24.0 × 15.6cm
○ 재　　질 : 죽지(竹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346년(원 순제 6, 고려 충목왕 2년)
○ 사　　유

『지정조격(至正條格)』은 1346년(원나라 순제 6년, 고려 충목왕 2년)에 간행된 원나라 최후의 법전이다. '지정조격'은 지정 연간(至正 年間)에 법률 조목의 일종인 '조격(條格)'을 모았다는 의미로, 조격과 단례(斷例) 두 종을 판각해 지정 6년(1346) 반포하였다. 원은 1323년, 1346년 두 차례에 걸쳐 법전

을 편찬했으며 지금까지 중국에서 원나라 법전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법전은 명나라 초기에 실전(失傳)되어 서명과 목록만이 『흠정사고전서총목(欽定四庫全書總目)』 등 다른 문헌에 전해져서 개략적인 내용만 알려져 왔으나, 2003년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어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지정조격 권1~12, 23~34'는 비록 완질은 아니지만 국내외를 통틀어 우리나라에서만 확인된 현존 유일의 원나라 법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양동마을의 경주손씨(慶州孫氏) 문중에 전래된 문적이다. 조선시대 명문가 중 하나인 경주손씨 집안에 '지정조격'이 전래된 배경으로 손사성(孫士晟, 1396~1435), 손소(孫昭, 1433~1484) 등 조선 초기에 활동한 선조들이 승문원(承文院)에서 외교문서를 담당한 직책을 역임하면서 법률지식을 습득하고자 '지정조격'을 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지정조격'은 고려 말에 전래되어 우리나라 법제사와 문화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여러 사료를 통해 확인된다. 1423년(세종 5) 원나라 간행본을 토대로 따로 50부를 간행했다는 기록과 1493년(성종 24) 성종이 문신들에게 하사해 읽게 하였다는 내용 등을 통해 조선 문신들의 외국 법률과 체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지정조격』은 원의 법률이지만 몽고의 고려 침입 이후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조선에도 『경국대전(經國大典)』 반포 이전까지는 기본적인 자료로서 참고하였다. 더욱이 이 책은 중국이나 몽골 등에서는 전래되지 않는 원나라 간행본이며, 고려 말~조선 초 법제사 연구와 서지학 연구를 위한 학술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지정조격 권1~12, 23~34'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알려진 원나라 법전이라는 희소성, 고려·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법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우리나라 및 세계문화사에서 탁월한 의미를 갖는 중요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고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

□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壯勇營 本營圖形 一括)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壯勇營 本營圖形 一括)
○ 수　　량 : 1건 3점(도형 기미본 1점, 정간 기미본 1점, 정간 신유본 1점)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절첩(折帖), 채색계화(彩色界畵) 및 간가도(間架圖)

연번	상세명칭	조성연대	전체크기 (cm) *펼침면	표지크기 (cm)	소유자 (관리자)	소재지
1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 도형기미본 (本營圖形 己未本)	1799년 (정조23)	195.5×112.5	39.7×28.5	국 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2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 정간 기미본 (本營圖形 井間 己未本)	1799년 (정조23)	193.5×111.1	38.6×28.7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박물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3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 정간 신유본 (本營圖形 井間 辛酉本)	1801년 (순조1)	192.7×124.0	40.7×31.5	국 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사　　유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壯勇營 本營圖形 一括)'은 정조(正祖, 재위1777~1800)의 친위부대였던 장용영(壯勇營)이 주둔한 청사의 본영(本營)을 1799년, 1801년에 그린 계화(界畵, 건축화)로서, 채색화 1점과 일종의 평면도안인 간가도(間架圖) 2점으로 구성되었다.

장용영은 1793년(정조 17) 정조가 왕권 강화를 위해 설치한 호위부대로, 도성 안에 본영(本營)을, 수원화성에 외영(外營)을 두고 운영되었다. 따라서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은 도성 안(지금의 서울 종로 4가 이현궁 터 추정)에 설치된 장용영 본영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관청의 변화를 기록하여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료이다.

정확한 축적에 기초한 평면도를 통해 상세한 건물의 배치를 그렸고, 정교한 필치로 건축물을 묘사하여 당시 장용영을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해준다. 이로써 지금은 형체를 알 수 없는 장용영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 세부 건물의 배치와 기능을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은 정간 구획의 대형 평면도와 이와 합치하는 채색 건물도가 함께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사례이자 유일한 자료이다. 즉 과학적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던 시기 축적과 지형지세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와 거의 유사한 대지의 형태를 표현했으며, 채색도와 간가도(間架圖,

평면도안)를 한 벌로 작성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건축적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후대에 확장된 영사를 다시 그려 장용영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은 도성 내 군사시설인 장용영 관청 건물구성과 변화에 대한 시각자료로서, ①제작시기와 목적이 명확하고 건축기록화의 제작방법, 활용과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실증유물이라는 점, ②어람용으로 간가도(間架圖)와 채색도를 함께 제작해 기타 간가도와 차별성이 돋보인다는 점, ③측량에 기반을 둔 대지 형태를 반영해 단순한 기록화의 수준을 벗어나 뛰어난 기술적 성취를 보여준다는 점, ④건물에 대한 사실적 묘사로 회화적 예술성과 더불어 풍부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
(慶州 南山 長倉谷 石造彌勒如來三尊像)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
(慶州 南山 長倉谷 石造彌勒如來三尊像)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경주박물관)
○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 수　　량 : 3구
○ 규　　격 : ① 본존 전체높이 163.0cm, 상높이 154.0cm, 어깨 폭 61.5cm, 광배 64.0×63.0cm
② 우협시 상높이 105.0cm, 어깨폭 32.0cm, 광배폭 36.5cm
③ 좌협시 상높이 98.0cm, 어깨폭 31.0cm, 광배폭 37.0cm
○ 재　　질 : 화강석
○ 제작연대 : 신라 7세기
○ 사　　유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慶州 南山 長倉谷 石造彌勒如來三尊像)'은 경주 남산 계곡 중 한 지류인 '장창곡(長倉谷)'의 정상부근 석실(石室)에 있던 석조불상이다. 본존상은 1924년 10월 남산 장창곡에서 발견되었다. 이전에 먼저 옮겨져 경주 내남면 월남리 민가에 보관되어 온 두 협시보살상은 일제강점기 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지금의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오다가 본존상과 함께 완전한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이 삼존상은『삼국유사(三國遺事)』의「탑상(塔像)」편 '생의사미륵(生義寺石彌勒)' 조(條)와 같은 책「기이(紀異)」편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조에 의해 644년(선덕여왕 13) 생의(生義) 스님이 경주 남산 골짜기에서 발견하여 삼화령(三花嶺)에 봉안한 미륵상이자 경덕왕때 충담사가 차를 공양한 삼화령 미륵세존 설화가 융합되어 삼국시대 미륵신앙과 신앙행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또한 어린아이처럼 귀엽고 천진난만한 용모로 인해 '삼화령 애기부처'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원래 봉안 장소라고 알려진 삼화령 또는 생의사의 근거가 될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불상이 발견된 계곡 명칭을 붙여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이라고 부르고 있다.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미륵세존의 설화와 삼화(三花)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신라시대 미륵불은 화랑(花郞)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신앙되어 왔다. 즉 장창곡 미륵여래삼존상은 망자(亡者)가 화랑으로 환생하기를 염원하였고 어린 화랑을 미래불인 미륵의 화신으로 여긴 신라인들의 정신세계와 제작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은 의좌상(倚坐像, 의자에 앉은 자세)를 취한 본존 미륵불과 좌·우 협시보살 입상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의좌상 형식의 불상은 중국 남북조 시대(5~6세기) 이후 크게 유행하였고 미륵불을 상징한 예가 많다. 장창곡 불상의 경우 우리나라 의좌상 불상 중 시기가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서, 원만하고 자비로운 얼굴에 오른손은 손가락을 구부린 채 들고 있고 왼손은 주먹을 쥔 수인(手印)을 하고 있다. 양 협시보살은 1미터 남짓의 아담한 체구에 머리에는 삼화(三花) 보관을 쓰고 각각 지물(持物)을 들고 있는 서 있다. 뺨이 통통한 아기와 같이 입가에 잔잔한 미소 짓고 있으며, 장식과 몸에 걸친 천의(天衣) 자락 등이 섬세하게 표현되다. 이렇듯 어린아이의 몸 같은 4등신 정도의 단구형(短軀形) 신체 비례를 보이는 불·보살상은 중국 6~7세기 북주(北周)시대부터 수대(隋代)에 걸쳐 유행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7세기에 신라에서 주로 조성되었으므로 양식적 영향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은 경주 남산이라는 원 위치가 명확하게 확인된 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의좌형 미륵삼존불이자 신라인들의 신앙생활이 반영된 대표작이라는 점, 7세기 신라 전성기의 수준 높은 조각양식을 보여준다는 사실에 비추어 한국조각사에 중요한 학술적·예술적 위상을 지닌 작품이므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陜川 海印寺 願堂庵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 및 腹藏遺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陜川 海印寺 願堂庵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 및 腹藏遺物)
○ 소유자(관리자) : ① 삼존상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원당암
② 복장유물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원당암(해인사성보박물관)
○ 소 재 지 : ① 삼존상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 해인사 원당암
② 복장유물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 해인사성보박물관
○ 수　　량 : 불상 3구, 복장유물 8건 23점 *목록 별첨
○ 규　　격 : ① 아미타여래 상 높이 72.5cm, 무릎 폭 61.0cm, 전체높이 89.5cm
② 관음보살(좌) 상높이 95.3cm, 전체높이 106.3cm
③ 지장보살(우) 상높이 91.8cm, 전체높이 102.8cm
○ 재　　질 : 목조, 동, 종이, 견
○ 형　　식 : 삼존상
○ 조성연대 : 조선 15세기
○ 제 작 자 : 초창: 미상, 중수 : 법잠(法岑), 법종(法宗), 경천(敬天), 청담(淸湛), 지일(智日)
○ 사　　유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陜川 海印寺 願堂庵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은 해인사 경내 부속 암자인 원당암(願堂庵)의 보광전(普光殿)에 봉안된 삼존불상이다. 해인사 원당암과 이곳의 불상 조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인물은 학조대사(學祖大師, 15세기)이다. 그는 해인사에 주석(主席)하면서 왕실의 후원을 받아 중창불사(重創佛事)와 대장경(大藏經) 인출, 해인사 법보전 및 대적광전 비로자나불 조성을 주도하였으며, 1495년 원당암 중창에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설법인(說法印)의 수인(手印)을 한 아미타여래상과 화불(化佛)을 새긴 보관(寶冠)을 쓴 관음보살, 민머리의 지장보살로 구성된 불상으로, 아미타삼존 도상을 정확하게 구현한 작품이다. 이러한 삼존상 형식은 고려 후기에 새롭게 등장한 도상(圖像)으로 조선 후기까지 지속되었다. 다만, 고려 또는 조선시대 작품으로 삼존상을 주불전에 봉안한 사례는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금산 신안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상' 등 남아있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 희소성이 크다.

조성 시기에 대해서는 불상의 형식과 복장발원문, 1490년 전후 왕실의 지원에 따른 해인사 중창(重創), 이후 1495년 원당암 중창이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감안할 때, 조선 15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복장유물을 통해 해인사 법보전과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조성을 후원한 왕실인물들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된다.

불·보살상의 얼굴은 통통한 둥근 형상에 조밀하고 섬세한 이목구비, 위엄있고 온화한 표정 등 수법이 서로 비슷해 동일한 작가의 솜씨로 보인다. 특히 삼존상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앙련(仰蓮)과 복련(覆蓮)이 맞붙은 연화대좌는 명나라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어서 당시 중국불교와 교류를 엿 볼 수 있는 요소이다. 나풀거리듯 드리운 목깃 주름과 신체의 유기적인 흐름을 따라 사실적으로 조각된 천의(天衣), 과장되지 않은 양감과 부피감 등 뛰어난 조형미는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국보 제282호, 1458년),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국보 제221호, 1466년) 등 15세기 중·후반 왕실발원 불상들과 양식적 연관성을 보여준다.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고려 후기부터 본격화된 아미타여래와 관음, 지장보살로 구성된 아미타삼존 도상을 보여주며, 조선 초 15세기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어 당시 불교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사례가 되는 작품이다. 또한 제작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원래의 봉안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제작 당시 모습 그대로 신앙의 대상으로 보존되고 있다는 점, 복장유물을 통해 제작배경과 참여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존상과 복장유물을 함께 보물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복장유물 목록>

연번	명칭	연대	재질	규격(cm)	수량	비고
1	불상복장기문	1694년	종이	38.6×177.3	1	*1694년(숙종20) 7월 17일에 處徽스님이 찬한 백지묵서 중수발원문으로 '佛法僧寶'가 새겨진 인장이 일곱 군데 찍혀있다.
2	원문	1694년	종이	39.9×61.1	1	*용인스님이 찬한 백지묵서 중수발원문이다.
3	후령통관련 후령통	15세기	동	높이 8.8 입지름 3.3	1	*수은아말감도금 *몸통은 원통형이며, 표면에 방주가 쓰여 있다. 후혈에는 오방천이 두텁게 돌려져 있다.
	양면원경	15세기	동	지름 3.3	1	*수은아말감도금 *오보병을 안립하고 마지막에 이를 덮은 양면원경이다.
	사리호	15세기	수정		1	*둥근 수정에 홈을 파고 나무로 봉하였다. 황색비단보자기에 쌓여 있음

연번	명칭	연대	재질	규격(cm)	수량	비고
	은제팔엽연봉	15세기	동	전체높이 1.0 최대폭 1.4	1	*연봉을 팔엽연꽃이 감싸고 있는 형태이며, 연꽃과 연봉은 따로 제작하였다.
	무공심주	15세기	수정	지름 1.8	1	*오보병의 중앙에 놓여 있는 구슬모양의 무공심주이다.
	오보병	15세기	견	높이 11.5 지름 8.6	1	*청-적-백-흑-황색 비단으로 오보병을 마련하고 다시 이를 오방색으로 감싸 오보병을 안립하였다.
	직물편	15세기	견	①백색무문사 5.3×5.3 ②홍색문사(3점) 9×3.2, 2.5×21, 11×2.5 ③ 황색주 42.4×3.4	5	*후령통 바닥에 접혀 있던 직물편으로, 황색 1점, 백색 1점, 홍색 3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보협다라니	15세기	견(絲)	20×2.7	1	*絲로 만든 것이며 후령통과 황초폭자 사이에 접혀 발견되었다. 금니로 소보협다라니를 적었다.
	황초폭자	15세기	견	25×25	1	*후령통을 감싼 황초폭자로, 표면 네 면과 후령통이 놓이는 밑면에는 오방색으로 오륜종자를 적었다.
4 사리호관련	사리호	15세기	수정 동	전체높이 2.5, 지름3.4	1	별도로 직은단보에 싸여 있던 사리호로, 6엽의 연꽃대좌와 둥근 수정제 몸통, 국화꽃 모양으로 타출한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다.
	織銀緞褓	15세기	견	5.5×5.2	1	*사리호를 쌌던 보자기

연번	명칭	연대	재질	규격(cm)	수량	비고
	青綠色紋綾褓	조선	견	12.1×13.5	1	네 모퉁이에 분홍색 비단실로 장식하였다.
	青色紬褓	조선	견	17.4×14.5	1	운보문단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청색주로 만든 보자기이다. 보자기 안에는 청록색문능보자기-직은보자기-6엽사리호의 순서로 납입되어 있었다.
5	青綠色花紋綾褓	15세기	견	28×28.2	1	*겹보자기이며 모란과 국화가 시문되어 있다.
6	운보문단주머니 雲褓紋緞囊	1	견	15.5×21.8	1	*청록색문능보자기에 싸여있던 주머니로 겉은 5매 3비 繻子織 또는 朱子織으로 그름과 寶紋을 표현한 운보문단이다. 주머니의 안감은 黃色紬로 했는데, 입구에 1.8cm 너비로 주황색주를 덧대고 그 안에 주머니 끈을 끼워 넣었다.
7	朱黃色雲龍紋織金 주머니	15세기	견	6.6×13.3	1	*운보문단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주머니이다. 주머니의 겉은 구름과 용무늬를 편금사로 나타낸 운용문직금주능이다. 주머니의 입구에는 약1.5cm 너비의 초록색 소화문직금능을 덧대었다. 직금으로 짠 최고급 주머니이다.
8	北靑色無紋주머니	15세기	견	8.5×12.2	1	*운룡문직금능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주머니이다. 겉은 3매 능직으로 직조한 무문능으로 하고 안감은 황색주를 사용하여 만든 주머니이다. 주머니 끈은 주황색 三線으로 역 125cm의 끈을 반으로 접어서 2줄로 끼워 넣었다.
계	이상 8건 23점					

□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 (陜川 海印寺 願堂庵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 腹藏典籍)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 (陜川 海印寺 願堂庵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 腹藏典籍)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원당암(해인사성보박물관)
○ 소 재 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 해인사성보박물관
○ 수　　량 : 29첩 *목록 참조
○ 규　　격 : 목록 참조
○ 재　　질 : 저지(楮紙)
○ 형　　식 : 절첩(折帖)
○ 조성연대 : 고려 13세기 중엽 판각, 조선 14세기 말~15세기 초 인출
○ 사　　유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陜川 海印寺 願堂庵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 腹藏典籍)'은 총29권 29첩으로, 『대방광불화엄경(진본晉本)』 23권 23첩과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貞元本)』 5권 5첩 및 『제다라니(諸陀羅尼)』 1권 1첩(수진본袖珍本)으로 구성되었다. 판각시기는 연대가 정확한 『제다라니』를 제외하고 대부분 13세기 중엽이며, 인출시기는 조선 14세기 말~15세기 초로 추정된다.

2017년 8월 원당암 목조아미타삼존불의 개금불사를 준비할 때 본존불의 목조아미타불좌상에서 발견된 복장전적이다. 이 가운데 『대방광불화엄경(진본)』 23권 23첩은 표지의 색이 진한 감색과 연한 감색 및 황색 계통으로 3종류이며,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도 진한 감색과 황색 계통의 2종류로 표제 등에서 각각 차이를 보인다.

현재 해인사성보박물관에 관리되어 있으며, 일부 권의 경우는 표지의 훼손과 본문의 습기 흔적 및 일부 장차(張次)의 누락(『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3의 제24장) 현상 등이 보이나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이다.

복장전적 가운데 『대방광불화엄경(진본)』 23권 23첩 및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5권 5첩은 13세기 중엽 조성된 국보 제206호 '합천 해인사 고려목판'의 해당 경판을 원천텍스트로 삼아 후대 3종류(진한·연한 감색표지와 황색표지)로 인출·장정한 후쇄본이며, 『성불수구대다라니경』 1권 1첩(수진본)은 1375년(우왕 원년) 조성된 목판을 후대 찍은 경전이다. 제24장의 1장이 누락된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3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개별 권의 장차가 모두 인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전체적인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대방광불화엄경』의 진본·정원본(眞本·貞元本) 28권 28첩은 표제의 표기 방식과 장정형태 14세기 초~15세기 말 경에 인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진한 감색 표지는 본문 글자의 마모도 등에서 연한 감색표지와 황색표지보다 이른 시기에 인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성불수구대다라니경』도 1375년 최초 판각 후 14세기 경 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대방광불화엄경』의 진본·정원본 28권 28첩은 14~15세기 당대 해인사의 사상적 경향과 함께 출판인쇄문화의 실체와 역량, 그리고 국보 제206호 고려목판에 포함된 개별 경판의 보존장소·상태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등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가진다.

특히, 『제다라니』는 휴대용 수진본(袖珍本)으로, 황색 비단의 표지로 장황되었다. 총 14장이며, 변상도부터 시작하여 여러 종류의 다라니·진언(眞言)을 이어진 다음 간행정보로 마무리된다. 인출시기는 조선 초기로 추정되나, 1375년(고려 우왕 1)이라는 정확한 판각연대가 있고 현재까지 발견된 유일본으로서의 희소성이 클 뿐 아니라 변상도(變相圖)에 보이는 삼불상(三佛像: 아미타불·비로자나불·석가불)과 마리지천(摩利支天) 도상은 고려 말 삼불상 구성과 마리지천 신앙을 알려 준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자료이다.

이처럼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은 29첩은 지금까지 알려진 동종 문화재 중 보존상태가 최상급이고 동일한 불상에서 일괄로 발견된 자료라는 점에서 완전성이 뛰어나다. 서지학적·불교학적 가치가 탁월하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장전적 목록>

연번	경전 이름	판종	수량	판각시기 (인출시기)	규 격(cm)	비고
01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5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1×1,069.2	표지 : 진한 감색 표제 : 금니(晉)
02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6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0×1,043.1	
03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1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0×970.0	
04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2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0×996.2	
05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7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1×970.0	
06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3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1×1,108.6	표지 : 연한 감색 표제 : 금니(晉)
07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4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1×1,091.2	
08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5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0×1,062.6	
09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7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1×1,110.9	
10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9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1×1,060.4	
11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1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0×1,014.2	
12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6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31.0×964.0	

연번	경전 이름	판종	수량	판각시기 (인출시기)	규 격(cm)	비고
				(14~15세기)		
13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4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7×1,084.4	
14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5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7×1,062.6	
15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6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8×1,036.4	
16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7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8×1,108.6	
17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0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8×939.8	
18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1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7×962.0	표지 : 황색 표제 : 묵서(晉)
19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2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6×984.0	
20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5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5×1,152.0	
21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6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6×986.0	
22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55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5×1,205.0	
23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58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6×1,104.4	
24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6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0×850.6	표지 : 진한 감색 표제 : 금니(貞)
25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32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0×899.2	권6의 표제 晉은 貞의 오자
26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12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6×939.9	
27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36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1×890.1	표지 : 황색 표제 : 묵서(貞)
28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38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6×865.9	
29	제다라니(성불수구대다라니경 등)	목판본	1첩	1375년(우왕 1) (14~15세기)	7.1×466.4	포갑·수진본
계	이상 29첩					

□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사보살입상 및 복장유물 (公州 甲寺 塑造釋迦如來三佛坐像·四菩薩立像 및 腹藏遺物)

○ 지정현황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65호(2002.1.10.)

○ 명　　칭 :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사보살입상 및 복장유물 (公州 甲寺 塑造釋迦如來三佛坐像·四菩薩立像 및 腹藏遺物)

○ 소유자(관리자) : ① 불보살상 : 대한불교조계종 갑사
② 복장유물 : 대한불교조계종 갑사(불교중앙박물관)

○ 소 재 지 : ① 불보살상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갑사로 567-3 갑사
② 복장유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불교중앙박물관

○ 수　　량 : 불상 3구, 보살상 4구, 복장유물 7건 263점　*목록 참조

○ 규　　격 : 석가여래 높이 268.9cm, 약사여래 237cm, 아미타여래 246cm
보살상1(석가 좌측) 229cm, 보살상2(석가 우측) 227.5cm
보살상3(약사 좌측) 230cm, 보살상4(아미타 우측) 228cm

○ 재　　질 : 소조

○ 조성연대 : 1617년(광해군 9)

○ 제 작 자 : 행사(幸思), 덕현(德玄), 천담(天潭), 희순(熙淳), 경륜(敬輪), 심정(心淨), 응매(應梅, 성은(性誾), 성종(性宗)

○ 사　　유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사보살입상(公州 甲寺 塑造釋迦如來三佛坐像·四菩薩立像)'은 1617년(광해군 9)에 행사(幸思) 등 9명의 조각승이 제작한 총 7존(尊)으로 구성된 대단위 작품이다. 이러한 7존의 형식을 갖춘 불상으로는 갑사 외에 '하동 쌍계사 대웅전의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보물 제1378호, 1639년)과 1703년 '화엄사 각황전의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1703년) 등이 전해지고 있다.

갑사 석가여래삼불·사보살상의 경우 임진왜란 이후 조성된 7존 형식의 불상으로는 현존 최대작(最大作)이자 최고작(最高作)으로서, 진흙으로 만든 소조(塑造) 불상은 평균 높이가 2.5미터이며, 보살상 역시 2미터 이상으로 제작되어 매우 장중한 인상을 준다.

제작기법에 있어서도 17세기 전반 대형 불상에 널리 적용된 소조기법으로서는 가장 빠른 사례에 속한다. 따라서 이 불보살상은 조선 후기 삼불상 및 사보살상 도상 및 제작기법 연구에 기준이 되는 중요한 기준작이라 하겠다.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해 1617년이라는 명확한 제작시기와 행사(幸思)를 비롯한 제작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며, 2,300여명이라는 조선 후기 최대 인원의 시주자들이 참여해 제작한 시대의 역작임을 보여준다. 수조각승 행사는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석준(釋俊), 원오(元悟), 각민(覺敏)의 조각적 전통을 이어 받은 조각승으로, 이 갑사 불상은 그가 참여한 가장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평가 할 만하다.

역삼각형의 갸름한 얼굴에 우뚝한 삼각형의 콧날에서 행사 작품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고, 장대하고 늠름한 자세와 안정된 비례, 기백이 넘치는 표현

등에서 임진왜란 이후 조성된 대형불상들에서 보이는 시대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 시주자들 역시 1630년대 금산사 중창불사를 주도한 수문대사(守文大師)를 비롯해, 현진・응원・법령 등 당대의 대표적 조각승들이 시주자로 참여해 불사를 지원했다는 점에서 당시 조각승들의 교류와 협력, 이 시기 불교 관련 인물들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크게 기여할 작품이다.

소조관세음보살입상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은 차음 조성 당시의 현황에서 변형되지 않고 온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술적・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사보살입상과 함께 보물로 지정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

<복장유물 목록>

연번	유물명	시기	재질	수량	규격(cm)
1	발원문	1617년	종이	1점	*1.2×37.8 *11매로 구성
2	후령통	조선 시대	비단 외	1점	*지름 7.8, 높이 27
3	오보병	조선 시대	비단·곡물	1점	*14.5×7.5 *검은색 비단에 곡식을 넣고 포장한 뒤 명주실을 감아 마감함.
4	비단편 및 목부재	조선 시대	비단·나무	2점	*비단편 37.8×57.7 *비단편은 용과 용비늘 문양을 시문함 *목부재 길이 85.3
5	묘법연화경 권7	1567년	목판본	3장	*27.7×17.8
6	묘법연화경 권1,2,3,4,5,6	1573년	목판본	213장	41.7×50.2
7	다라니	조선 시대	목판본	42매 (흑색33매, 주색9매))	*38.2x57.0
계	이상 7건 263점				

□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사보살입상 복장전적 (公州 甲寺 塑造釋迦如來三佛坐像・四菩薩立像 腹藏典籍)

○ 지정현황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65호(2002.1.10.)
○ 명　　칭 :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사보살입상 복장전적 (公州 甲寺 塑造釋迦如來三佛坐像・四菩薩立像 腹藏典籍)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갑사(불교중앙박물관)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불교중앙박물관
○ 수　　량 : 8건 8점 *목록 참조

○ 규　　격 : 목록 참조
○ 재　　질 : 저지(楮紙)
○ 형　　식 : 절첩(折帖), 선장(線裝)
○ 조성연대 : 고려 말~조선 초 판각 및 인출
○ 사　　유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사보살입상 복장전적(公州 甲寺 塑造釋迦如來三佛坐像・四菩薩立像 腹藏典籍)'은 소조관세음보살입상에서 발견된 전적류 8건 8점이다. 필사본은 1종으로 백지에 묵서로 서사한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이며, 그 외는 모두 목판본이다. 2015년 6월 (재)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복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불교중앙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어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이다.

간행 시기는 고려본과 조선시대 16세기 중반까지로 확인되며, 복장발원문에서 확인된 불상 조성시기인 1617년(광해군 9) 이전에 인출된 자료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사보살입상 복장전적'은 판본으로서의 중요성뿐 아니라 판각과 인출에 관련된 역사적 인물 그리고 장정 형식 등에서 학술적・서지학적 가치를 지닌다. 더욱이 공주 '갑사 대웅전 소조삼불좌상'의 협시보살상의 조성 시기에 해당하는 1617년 이전의 복장 경전류의 유형과 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일괄 유물로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복장전적 8건 8점은 보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복장전적 목록>

연번	경전 이름	판종	수량	판각시기 (인출시기)	규격(cm)
1	백지묵서금강반야바라밀경	필사본	1첩	1388년	29.7×240.9
2	묘법연화경 권1~3	목판본	1책	1399년 (고려 말~조선 초)	26.9×16.8
3	묘법연화경 권1~3	목판본	1책	15세기	28.5×17.8
4	묘법연화경 권3~4	목판본	1책	1405년	27.3×16.7
5	묘법연화경 권5~7	목판본	1책	1493년	36.5×21.8
6	묘법연화경 권4~5	목판본	1책	1555년	35.3×24.6
7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6~10	목판본	1책	1433년	27.7×17.1
8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8~10	목판본	1책	1352년 (고려 말~조선 초)	34.1×17.3
계		8건 8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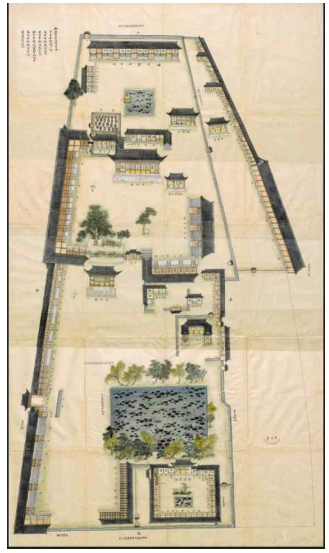
[지정예고 사진]

○ 국보 지정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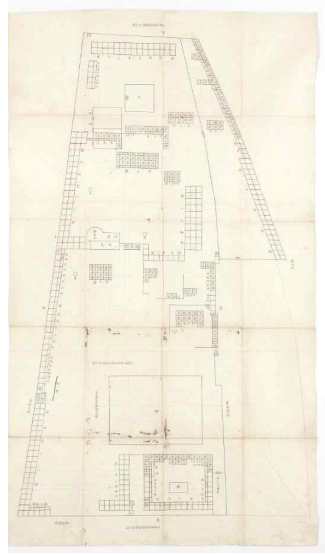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

○ 보물 지정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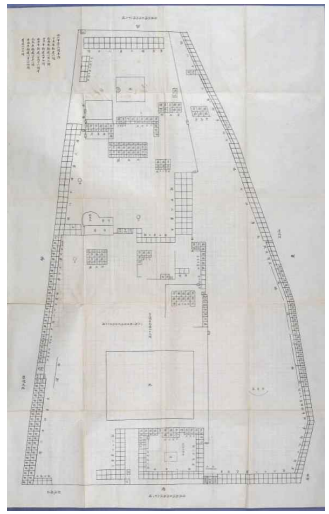
지정조격 권1~12, 23~34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기미본(1799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기미본(1799년)
*고려대학교 박물관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신유본(1801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유물(불상복장기문)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화엄경 진본 및 정원본)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
(제다라니경 변상도)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사보살입상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사보살입상 복장유물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사보살입상 복장전적
(백지묵서금강반야바라밀경)